

창원시립마산문학관 제53회특별기획전
<삼시삼색, 창원을 노래하다> 전시 작품

- | | |
|---------------------|----------------------|
| 1. 강신형 / 창동골목 | 25. 안화수 / 문화원 있던 자리에 |
| 2. 강지연 / 백팔 배의 달빛 | 26. 오하룡 / 가고파 노래 |
| 3. 곽병희 / 안민생태교 | 27. 우무석 / 휘영청 달빛 그림자 |
| 4. 김교한 / 그리운 역 | 28. 우원곤 / 내동 올림픽공원 |
| 5. 김규동 / 전어축제 | 29. 유희선 / 사춘기 |
| 6. 김근숙 / 사랑 고백 | 30. 윤종덕 / 봉화산 봉수대 |
| 7. 김명화 / 안민고개 | 31. 이경희 / 그냥 그렇게 |
| 8. 김명희 / 꽃댕강 편지 | 32. 이광석 / 봄날은 간다 |
| 9. 김미윤 / 마산 연가 | 33. 이달균 / 마산항 |
| 10. 김병수 / 一竹軒 獻詩 | 34. 이서린 / 그런데, 살아있다 |
| 11. 김복근 / 비포리 매화 | 35. 이숙자 / 아구찜 |
| 12. 김선례 / 창세기 바다 | 36. 이영자 / 마 산다 |
| 13. 김승강 / 마을의 미인 | 37. 이우걸 / 아, 마산이여 |
| 14. 김연동 / 창원천 | 38. 이월춘 / 성흥사 가는 길 |
| 15. 김일태 / 가로수 길 위에서 | 39. 이주언 / 성산패총 |
| 16. 김종두 / 진달래 꽃 | 40. 이처기 / 천신호 뱃고동 그후 |
| 17. 김형엽 / 주남지의 삼월 | 41. 정선호 / 풍요로운 미래의 땅 |
| 18. 김효경 / 안민고개 | 42. 정이경 / 벚꽃이 피었다 |
| 19. 김흥님 / 진해를 품다 | 43. 조홍제 / 어울리다 |
| 20. 박수정 / 당신의 빈자리 | 44. 천용희 / 낙조 |
| 21. 박은형 / 연두 | 45. 최두환 / 천자봉 |
| 22. 서일옥 / 파도 소리길 | 46. 최석균 / 창원 용지 |
| 23. 성선경 / 달천 | 47. 하 영 / 합포만 연가 |
| 24. 신승희 / 곰메바위 아리랑! | |

창동골목

강신형

어느 봄날, 나비가 되어 날았었다

소문들이 끝없이 송송했던 골목
잊혀진 사람들이 스스럼없이
겉옷을 벗어두고 거닐었던 골목
된장 냄새와 비릿한 어창(魚艙)의 냄새가
슬땀 스며든 골목

하늘이 어둡고, 청춘이 가고
비가 내리고 하여도
오늘 다시 꽃이 돌아나는
삶의 그리움이 묻어있는 골목

나비가 난다
봄의 날개가 퍼덕인다
말간 햇살 빛나는 창동 뒷골목

백팔 배의 달빛

강지연

백해* 갤러리에 잔잔히 흐르던 드뷔시
문학 그림 음악 고미술
모든 예술 품으셨던 당신
행사 때마다 오시지 않음은
저승 가셨음을 일깨워 주는 듯
당신의 부재를 아쉬워하는
우리만 이렇게 모였네

삶의 신비를 끝없이 탐구하고
번다한 세상을 단아하게 사셨던 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대 그림자
백팔 배의 달빛으로 가슴에 무너지네

*백해: 서인숙 님의 호.

안민생태교

곽병희

가파른 고갯길을 산허리에 그리던
오직 편함의 청맹과니가

산타던, 고향이 귀여운 마음이
차바퀴에 하나 두울 깨어져 나가자

눈먼 측은지심도 점차 점차
열리기 시작하였던가 보다

마침내 그 확대된 동공이
벌어진 틈에
무지개 하나 내걸었구나

자동차의 마음도 다시 경쾌하여졌네
그 허리 상처도 새살 돌아났다네

그리운 역

김교한

우리들은 언제부터가
큰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인내하며
멀리 보고 가야 했다
아쉬움 참아 가면서
세월 앞에 성찰해 왔다

고향길 하나 되게
그대가 있어 가능했다
비 오고 바람 불어도
자국 놓고 오가는
언제나 그리운 노래가 울릴
광장은 기대가 크다

전어축제

김규동

겨우내

한뼉잠 쫓기다 여윈 뼈마디

봄별

행구어 가지런히 포갠 비늘

맹별

잘 여문 구름결 채운 속살

갈별

불단풍 지피다 돌았은 까치울

꼬습다.

사랑 고백

김근숙

주어진 날들의 다 저녁때
낮은 언덕 풀밭에서
고운 노을 온몸으로 받으며

하지 못한
어설픈 사랑 고백
오늘에사 풀어볼까

마산에서 살았다고
마산을 사랑했다고

안민고개

김명화

한낮의 따스한 햇살이
저물 무렵이면 다시 모여들어
나무는 나무끼리
산새는 산새끼리 쓰다듬어
적막도 아득한
길 위에 길이 여기 있는 곳

꽃땡강 편지

김명희

종을 흔들고 있어
꽃처럼 저만치 물러서서 흔들고 있어
나의 치마를 들추고 달아나던 키 작은 네가
동네 예배당 종곽을 돌아 봉림천을 달리고 있어
땡강땡강 꽃이 흔들리는 쪽으로 바람이 귀를 모아
태복산 마지막 물줄기에 발을 담그고 있어
점박이 땡별 참나리에 입술을 찍고 있어
사랑사랑 숨소리 읽고 있어
지나간 날은 다 꽃시절이었다고
넌 아직도 땡땡땡 편지를 쓰고 있어
221번 종점, 버스가 몸을 틀며 한바탕 매연을 지르고 있어
여름이 하얗게 따라가고 있어

마산 연가

김미윤

숨가쁜 삶 목청을 돋워 던진 부표로

속울음 흔적 묻은 물안개 피어나고

멍에 씌우듯 옛일이 두 눈에 밟힐 때

시름 겨운 매듭 풀다 저무는 합포만

미상불 세상사 풀잎처럼 흔들리다

중앙부두 한 언저리 적절히 되짚어

어칠거린 허상들 무리무리 쌓이니

간화선看話禪 움켜쥔 계절마저 흘러든다

一竹軒 獻詩

金 炳 秀

西北後屹
錦川前流
山河鍾氣
錦山吉地
一竹遊息
林泉自足

뒤쪽으로 서북산 우뚝하고
앞으로는 금산천이 흐른다네

강산의 정기가 모여든
금산마을은 길한 땅이라

일죽 시인이 공부하고 쉬며
자연을 즐기며 만족하노라.

비포리 매화

김복근

어제는 비가 와서 비와 비 비켜서서

바닷가 갯바람은 말끝에 힘을 주고

잘 익은 선달 보름달 언가슴 풀어내듯

벼리고 벼린 추위 근골을 다잡으며

백 년 전 염장 기억 파르라니 우려내어

경상도 꿈 많은 사내 冬至梅를 구워낸다

창세기 바다

김선례

바다는 바다끼리 어울린다.
동해 바다와 서해바다
물을 가르느 폭풍에 열기 속에
태평양과 대서양의 바다가 함께
저 우람한 걱정을 삭힌다.
때론 분노하고 할퀴며 위로하면서
피안에 드는 저 물 사위
세상이 하나라며
저리도 아우르며 아득한 창세기
밀물져 오는 하나님의 바다
한생의 비명 저 파도의 무리
오늘도 우주에서 하나가 되어
나의 허파로 다독이며
푸른 숨을 쉬어 생명을 부른다

마을의 미인

-안민동

김승강

어느 마을이든 바보 한 명쯤은 있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 해도
미인은 있다

장미가 한창이라기에
장미 따라 마을길을 돌아가는데
처음 보는 미인이 마을길을 돌아와 나를 지나갔다

미인은 마음으로 장미 한 송이 건넬 시간도 주지 않고
섬광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마을 어딘가에 미인이 살고 있다

나는 미인의 마을에
미인과 함께 살고 있다

창원천

김연동

지난 상흔 지우듯이 풀빛으로 물들었다
마른 냇가 거닐 길썬 늘어선 코스모스
가을빛 환하게 피워 오가는 눈을 끄네

우리 언제 발 담그고 눈빛 한번 나눴던가
찌든 맘 맑게 씻고 깨끗이 닦아야 할
초록이 어우러진 강안 다시 볼 날 오겠구나

웬만큼 맑아진 물 잉어가 돌아오고
눈부시게 날개 펴는 귀빈 같은 철새들이
천변의 굽힌 생채기 위로하듯 돌다 가네

가로수 길 위에서

김일태

나무는
걸어온 길 스스로 축복하기 위해
제 발자국 위에 수를 놓는 것이다

제 가야 할 길 보기 위해
저리 환하게 축을 밝히는 것이다

또 한 번 험한 계절
가벼이 건너고자
불필요한 수식 버리고
여백을 품는 것이다

진달래꽃

김종두

꽃 피네 꽃이 피네
진달래꽃이 피네

하늘을 이고선 천주뒤편에
진달래꽃이 피네

꺾어 와 주고 싶네
당신에게 주고 싶네

죽고 싶네 죽고 싶네
저 꽃 속에서 죽고 싶네

죽어 묻히더라도
저 꽃 속에 묻히고 싶네.

주남지의 삼월

김형엽

일곱 살 소녀가
자전거를 타다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아침의 저수지를 어디론가 떠 옮겨가듯
물방울 흘뿌리며
힘차게 날아오르는 오리떼들
엄마, 나도 이제 보조바퀴는 떼고 달릴래
연분홍 깃털 같은 한 마디 툭 던지고는
허공 속 오리떼의 꿈무늬를
소녀는 한참이고 바라본다

안민고개

김효경

목청껏 부르던 청춘의 그 노래
지금은 들을 수 없어도
구불구불 가는 길에
계절은 또 어김없다

어디서 누가 또 작별하는지
오늘은 아침부터 가랑비 뿌려
나뭇잎 우수수 흩날리고

고개 넘어 바다로 간
너의 얼굴을 나는
잊어버리고

진해를 품다

김홍님

진해 앞바다 큰 가슴으로
고단한 노근을 드리넨 채
뿌리내린 삶의 여정들이 정겹다

해병 혼 깃든 시루뽕 아래
병풍처럼 둘러친 섬들이여

내 너를 품어
어여뻐 사랑한다 여겼거늘
오호라, 아니었구나
태곳적부터 유구히 지켜온 녀
진해여, 네가 나를 뜨겁게 품었구나

당신의 빈자리

박수정

시골 친정에 가면
빈 지계를 볼 때마다
당신의 빈자리가 그립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그 이름 앞에 서면
태산같이 크신 당신의 빈자리
먼저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가끔 시골길을 가다
털털거리는 경운기가 지나가면
육십 평생 당신의 고달픈 삶이 보입니다
무거운 삶을 지고 묵묵히 걸어온 당신
그 무거웠던 팔 남매 농부의 삶을
내 아이들이 만 20세를 넘어서야
이제야 알 것 같나이다.

해마다 가을이 오면
당신은
저 들판 끝, 논두렁 길로 비틀대며
작은 산 하나를 지고 오고 계십니다.

연두

박은형

주남지 왕버들이 연두를 시동 겁니다
넋짓한 마음을 단숨에 뜯어내는 승냥이 떼 같습니다

늦으면 늦은 대로 연두를 따라붙으려
두툼하게 녹이 난 슬픔이나
생애 첫 연서의 무용한 형식에 대해 고심합니다

일몰의 긴 회랑이라면 눈부신 줄음
폐역의 늦은 당신이라면 단팔죽 한 그릇
빈 식탁이라면 먼지를 보여 주는 흑백 한 문장

다발로 묶어 연두를 실어 갈 당나귀 어디 없을까요
당신과 나의 담장에도 뭉개질 만큼만 놓아기르기로 해요

연두가 그저 몇 걸음의 눈 배웅에 관여하는 거라면
나는 말할 수 없이 쓸쓸해서 꼭 살겠습니다

전송된다면 사랑
죽음이라면 꼬덕꼬덕 자장가까지
저수지 너른 고독에 찢려 신접의 병상처럼 예는 것

내 마음을 따라잡는 연두였다고 중얼거립니다

파도 소리길*

서 일 옥

맑은 바람 감고 도는 나무와 나무 사이
푸른 물빛 안고 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
청라 빛 고운 꿈 꾸며 환하게 걷는 길

비워야 채워지는 항아리의 물처럼
파도 소리길 돌다 보면 차르르 고여 들어
꽃길에 흔들리면서 나도 한 점 수목화

* 파도 소리길 : 돌섬 해안의 아름다운 산책길

달천

성선경

복숭아 꽃잎이 한두 장 떠오르고요
애인과 입 맞춰도
뒤편이 안아요
아마도
무릉도원이
이 근처(近處)인가 봐요.

곰메바위 아리랑!

신승희

어둠 속에 전설은 더욱 선명하다
한줄기 영롱한 빛을 따라
전설은 서투른 날갯짓으로
초저녁 홀리는 달빛 아래 퍼덕이고 있다
눈길 닿는 저곳, 영혼마저 걸린 달빛으로 서서
그리워 저물지 못한 저 - 산마루 시루봉
오백 년 아리랑이 허공에 가슴을 푼다.
웅산 정상에서 흐느끼는 달빛
침묵은 무거워 흐느끼는 불에 눕고
비련의 아천자, 전설에 감기운채
희끄무레 스치는 작은 바람들
태어난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뚝 솟은 시루봉이 소리치고 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밤하늘 곰메가 부르고 있다
조선이라는 태를 두르고 순종의 무병장수
명성황후 백일기도, 한 맺힌 역사가 전설 속에
흐느끼고 있다

곰메여!
한마디 말도 없는 곰메여
웅산 정상에 묻힌 전설이여
외세의 말발굽에 짓밟혔던 아리랑이여
단 한 번, 흰 바람이라도 붙잡고
곰메의 가슴을, 풀어놓고 싶지 않은가
명성황후도, 비련의 아천자도, 할배 할매도
넋이 감겨 우는 거암 시루봉 곰메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강물은 흐르고 있다
강물은 흘러도, 저 시리도록 푸른 별들
억만년 그 자리에 있었으리라
곰메여, 눈을 뜨고 말이다.

문화원 있던 자리에

안화수

가을바람이 지나가고 있다
용마산 시의 거리를 거쳐
산호 공원 맨 꼭대기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주인장은 보이지 않고
옷차림 가벼운 사람 두셋
홀라후프 돌리는 초로의 아주머니
옆에 남자는 굵은 나무에 등을 두드리고
조금 떨어진 곳의 또 한 사람
낡은 시멘트 벤치에 앉아 졸고 있다

가고파 노래

오하룡

마산 사람들은 가고파 노래를 잘 안다
가고파 노래가 가고파 노래가
얼마나 얼마나 고향다운지를 잘 안다

가고파를 흥얼거릴 줄 아는 사람은 안다
그 노랫말이 그 노랫말이
얼마나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지를 안다

가고파 노래는 마산 상징이라는 걸 안다
마산 사람 아니 마산 사람 아니
마산 사랑 마산 사랑 그 자체임을 잘 안다

휘영청 달빛 그림자

-뮤지컬 '만날고개 연가' 서시

우무석

천년 전

저무는 하늘에도

연시빛 노을 깔려 있었으리.

봉암나루 먼 산 위로 떠오른 달은

오십리꽃밭 꼬트머리까지

느리게 느리게 건너 갔으리

휘영청 달빛 그림자

맑은 소리로 출렁이면서

천년 후

아득한 지상에도

만날노래 한자락 이어지리라

두척(斗尺)산빛 푸르게 스민 노랫소리에

한 슬픔이 또 한 슬픔을 달래면서

사랑과 상처를 잊지 않을지니

휘영청 달빛 그림자

어떤 사랑의 사상이 되어

내동 올림픽공원

우원곤

내동교육단지 벚나무 터널 지나 왼쪽으로 내려가면 내동패총과 올림픽 공원이다. 내동천을 향하는 하천이 나오고, 올림픽공원 운동시설 1번방에서 2번, 3번방을 거치면 바다의 파란 문을 여는 4번방에는 칠성판이 놓여있다. 잠시 하늘을 보고 누우면 내 나이쯤 된 소나무가 푸른 솔방울을 여러 개 달고 있고 이따금 산들바람이 불면 소나무 가지 사이로 하얀 물결이 일렁인다. 잠시 말향고래를 만나는 시각이다. 조개따비 등 해초류를 덕지덕지 붙인 채 회색머리를 내미는 광경, 천년을 더 넘게 기다려온 꿈인 듯, 두런두런 그네들의 노랫소리, 산들바람, 분수처럼 퍼지는 햇살, 교신이 터지는 한바다다. 고래들의 노랫소리가 바다를 넘고 하늘을 넘어 숲속까지 달려와 눈 시리게 부서지듯 가득한데- 오래전 그들의 미역 숲에 누워 있고.

사춘기

유희선

성산아트홀 벽면에 길게 늘어뜨린 대형 현수막들
찢겨 날아갈 듯 필력거린다
허공 쪽으로 팽팽하게 부풀었다가
바람이 휩 빠져나가며
수십 차례 진저리를 친다

용지호수를 반쯤 돌아 어느 구석진 벤치에서
아직 앓던 남자애가 또래의 여자애를 등 뒤에서 껴안고 있다
등과 가슴 사이에 풍선만 한 바람이
훅! 부풀었다가 납작해진다

밀고 당기는 까르륵 까르륵 웃음소리
공기를 가르며 부드러운 칼질들
그날 밤, 태풍 하기비스는 한반도를 무사히 비껴갔다

가을 태풍은
그 후에도 몇 차례나 이어졌다
못내,
성이 찰 때까지

봉화산 봉수대

윤중덕

철썩이며 일렁이는 파도
섞여 사는 합포만 물결
숨 가프다 숨이 가프다 빠르게

봉수대 불길 불타오르지 않고
연기도 피어오르지 않는 우울한 날
이슬에 젖은 창원대로 아침햇살 보라

두척산 줄기 해발 265미터
옆집 함안 안곡산 이웃 진해 고산
목멱산 서울 하루면 닿아

너와 나 우리 한데 어울려
솟아오르는 여명 조용한 공단
녹슨 용광로 새로 녹인 쇳물

변화의 물결 질주하는 수소자동차
신소재 새로운 상품 새바람 품어봐
희망은 늘 우리와 함께하니까

그냥 그렇게

이경희

나, 오늘도 그냥 그렇게
바람에 구름 흘러가듯
물이 내리막길로만 스미듯이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어리라.

여기가
내 쉴 곳
편하고 거리낌이 없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밭길 가는대로 살~어리라.

작은 것도
만남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냥 그렇게
단출하게 살~어리라.

봄날은 간다

이광석

안민고개 벚꽃길이
하산 채비를 하는
어느 봄날 저녁
진해루 앞바다에
희디흰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술잔에 받아 마셨더니
벚꽃이었습시다
지는 꽃잎에 취해
한 잔의 외로움에 취해
봄날이 제 혼자 가고 있었습시다

마산항

이달균

고래는 없다
파도를 물어뜯는 상어도 없다

그래도
고래고래 소리치는
술고래는 있다

풀린 동태 눈깔에 비치는
어시장 난전

그런데, 살아있다

- 북면 온천에서

이서린

그 뜨거운 여름에 온천을 갔다. 가출하는 심정으로 빨간 버스를 탔다. 사는 것이 옛 같은 시절이었다. 그래, 마지막이다 목욕이나 하자. 안이나 바깥이나 숨 막히는 건 매 한가지. 시뻘건 얼굴로 밖에 나왔을 땐 노을이 울컥하였다. 목욕탕 담벼락엔 쪼글쪼글 내 심장 같은 맨드라미가 초라하였다. 맨드라미와 노을과 여름, 계속 살아야 하나? 나는 오래오래 고개 숙이다 왈각 심장 한 덩이를 토해놓고 다시 버스를 탔다. 두고 온 심장이 생각난 어느 날 온천을 찾았다. 목욕탕은 근사하게 증축되었고 맨드라미는 흔적도 없고 나는, 아직, 살아있고

아구찜

이숙자

마음에 휘이잉 바람이 지나가는 날
그리운 사람을 못내 그리다가
오동동
아구찜 집으로 발걸음이 가볍다.

빨갭게 단장한 아구를 회롱하듯
호호 부는 열난 입 안
단번에 솟는 눈물
막혔던 삶의 긴 길도 내 속으로 열린다.

*아구: 아귀. 마산을 중심으로 한 경남지역에서 아귀를 일컫는 말

마 산다

이영자

예전에 한 친구가 물었다
어디서 어떻게 사냐고
마 산다고 대답했다

요즈음 친구가 물었다
지금도 마산에서 사냐고

떠났어 벌써 떠났어
떠나지 않고는 모를
그리움 쌓으며 산다고 했다

친구야 듣느냐
이래저래 마 산다

아, 마산이여

이우결

자랑스런 마산이여, 너는 어떤 모습인가
사람들은 네 속에서 민주주의를 읽어내고
사람들은 네 속에서 자유를 읽어내고
사람들은 네 속에서 정의를 읽어내고
사람들은 네 속에서 분노의 깃발을 읽어낸다

그러나 역사여
마산을 시험하지 말라
마산은 언제나
해안선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항구
어질고 건강한 인성의 시민
시와 음악과 그림이 숨쉬는
아름다운 인간의 도시로
살아가고 싶다

- “아, 마산이여”의 에필로그 부분임

성홍사 가는 길

이월춘

나무들 속의 산이 타고 있다
있고 없음의 검은 길을 따라
산을 오르며 물을 만난다
땅에 흠어져 뒹구는 낙엽마다
티끌에 덮인 마음 하나씩
내다 버리며 걷는 길
그래도 끈이 없어 한숨짓는 길
그러다가 아뻘싸 끝을 바라다니
산중의 아름다움에 탐을 내다니
짜악 짹 자책의 죽비소리 듣는 길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산 아래의 소리를
귀와 눈 모두 닫고 듣보지 않는 산
그 산과 더불어 엮드린 성홍사
산이면 산 물이면 물
사람이면 사람 시면 시
어렴풋이나마 듣고 볼 수 있는
청맹과니의 귀와 눈을 열어주소서

성산패총

이주언

아찔하다!

너의 속을 들여다보는 일

오래 열려 있는 깨진 심장이다.

긴 울음과 한 끼의 식사들

누적된 시간이 오로라처럼 살아나

연주를 하고 있다.

신석기에 머물다 철기를 흐르다

절단된 멜로디로 이어져

달빛과 파도, 생과 멸을

쉬지 않고 끌어오는 고단함

매번 태어나는 하루의 음계를

태양이 걸음걸음 건반을 누르며 간다.

천신호 뱃고동 그 후

이처기

돌섬 지나던 천신호 뱃고동 소리 멀어져간 후
산호동 한일합섬 팔도잔디 그 터엔

와 와와!

무학산을 넘는

NC의 함성이여 !

풍요로운 미래의 땅

정선희

창원에는 일찍이 바다와 넓은 들 있어
쇠를 만들고 다른 나라와 무역을 했다
쇠를 만든 채주는 후손들에게 전해져
기계공단 만들어 나라의 중심이 되었고
온 세계로 뻗어나갔다

의로운 사람들 많아 3·1운동 거세게 일어났고
3·15의거 일어나 4·19혁명의 씨앗 되었다
10.16항쟁은 끝내 독재정부 무너뜨렸으며
노동자들도 권익과 복지 지키려 애썼다

창원(昌原) 시민들, 언제나 어디서나
풍요로운 미래 위해 진한 땀방울 흘렸다

벚꽃이 피었다

정이경

장복산을 배경으로 두고
옆구리에다 바다를 끼고 열한 달을 살았다
간혹 해무와 함께 비가 다녀갔다
보름 정도는 햇볕을 데려와 놀기 좋았고
남은 보름을 펼쳐 엽서를 쓰기에 좋았다

어울리다

조홍제

물색도 반반히 젖은 공간에 철새들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열리고
뭐가 그리 좋은지 억새들 웃다가 쓰러지고 쓰러지는 바람 사이로
연밥을 물고선 저수지 잔물결이 따사로운 오후를 찢고 있다

둘레길 걸어가는 지친 발자국들 찢한 흙내에 발효되어갈 때
잠자리 때 뱅그르르 허공 접고서 코스모스에 내려앉아 한숨 돌리면
하루를 여미는 낙조 주남저수지 푸른입술을 덮치고선
붉디붉은 시구詩句를 읊어대는 저 찬란한 잔상들
어느새 행간에 들어선 나도 살랑살랑 풍경으로 물든다

낙조

천윤희

갯고랑으로 들리는 먼 해조음을 따라
잔 노을 일렁이는 봉암 갯벌
붉은 하늘 긴부리도요새가 남긴 발자국은
지워도 지워지지 않은 당신의 혈죽이다
지척에 두어 잊고 지낸,
주고받은 안부가 리트머스 종이처럼 스미는 그곳
뉘엿뉘엿 노을로 귀가하는 저물녘에
농계가 부려놓은 일련의 점자는
저 먼 밤바다를 가로질러 복원된
천년 갯벌의 후일담이다

천자봉

최두환

코뚜레 이까리 따위는 없다
길마의 짐처럼 젖무덤 안고
젖소가 길게 드리누웠다
하늘에 젖꼭지 물리고는
눈을 감고 귀를 늘어뜨리고
생각에 잠겨있는 와우불
태를 묻었던 전설을 품고
꿈속에 그려본다 새 천자를

창원 용지

최석균

귀 씻을 소리도 없고
발 담글 여울도 없는데
밤낮 발길을 끈다

물이 모여 연못이 된 것이 아니라
한 마디 두 마디 떨어뜨린
꽃과 새와 바람의 말
아이의 말 어른의 말 남녀의 말들이 모여
출렁이고 있는 것이다
물결같이 많은 말 중에
가장 깊이 가라앉아 있는 것은 침묵이고
가장 가까이 들리는 것은 웃음이다
그 많은 말을 다 풀어 녹이면
사랑이다

그 출렁이는 힘으로
뱀 몸통 같은 산책로를 돌다가 나오면
귀와 발이 깨끗하다

합포만 연가

하 영

빗줄기의 끝을 물고 일제히 날아오른
팽이갈매기의 날갯짓을 보아라
커다란 그물이 되는 합포만을 보아라

그물 속에 갇힌 돌섬
한 마리 고래로구나
고래등에 떨어지는 하느님의 눈물 속에
그 옛날 합포 물빛이
전설처럼 푸르르다